

# 대학 수업에서 소그룹 활성화 방안: 대학생들의 인식에 중심으로

김병선\*, 손은경\*\*, 김무학\*\*\*

\*가톨릭관동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e-mail:bstesol@cku.ac.kr

##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Small Group Activity in University Classes: Focus on Perspectives of University Students

Byung-Sun Kim\*, Eun-Kyoung Son\*\*, Moo-Hack Kim\*\*\*

\*VERUM College,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Depart. of Child Care, Joongbu University

\*\*\*ChungAng University

### 요약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소그룹 활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그룹 활성화 방안으로 도출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의 긍정적인 반응과는 달리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목소리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연구자들이 편견 없이 현상학적 환원과 괄호치기 등을 통해 설명된다면 소그룹 활동에 대한 문제점 내지 개선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전공이 다양한 소그룹 활동 경험 있는 10명의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자로 삼았고,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교실 현장에서 소그룹활동 활성화 방안이 제안될 것이고, 향후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평가받을 때보다 평가에 있어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무임승차 등으로 인해 손해볼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이에 연구자들은 소그룹 활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심층 분석하고,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그룹 활성화 방안을 찾아 제시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그렇게 될 때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즉 학습자 주도의 수업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 서론

학습자 중심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교수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즉 학습권을 학생들에게 위임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대학들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습자를 중심에 둔 교수 방법인 플립러닝과 PBL의 적용이 이를 잘 말해준다. 실제 소그룹 활동은 전통적 강의식 교육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학습주체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여 학습 성과를 높인다는 연구(De Grave et al, 2001)가 있다. 또한 전통적인 교육방법에 비해 동기 향상과 성적향상에 큰 성과를 거둔다는 연구(Menggo & Ratmimingsih, 2013)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와 달리 연구자들이 경험한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목소리는 사뭇 다르다. 소그룹 활동에서 초면인 친구들과 한 조에 편성되다 보니 서먹함에서 나오는 불편함, 즉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 2. 본론

본 연구를 위해 질적 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귀납적이며 서술적인 연구방법인 현상학적 접근의 주된 작업은 인간의 경험을 내포하는 현상을 넓고 깊게 탐구하여 전체를 기술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의해 경험된 현상이 그대로 탐구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선입견이나 범주를 사전에 갖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현상학적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판단중지와 일체의 선입견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는 현상학적 환원 그리고 괄호치기 기법의 실천을 통해 현상학적 연구가 제대로 실현되

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전공이 다른 소그룹 활동 경험이 있는 10명의 학습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한다. 심층인터뷰는 반구조화 면접법으로 진행할 것이다. 반구조화 면접법은 구조화 면접법과 비구조화면접법의 중간 형태로, 면접 질문은 일부 구조화되어 있지만 일부는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된다. 면접 질문 중 일부는 미리 정해져 있고, 일부는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면접 질문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연구윤리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개인정보는 절대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과 연구가 끝나는 대로 모든 자료는 파기될 것임도 약속할 것이다.

훌륭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것이다. 첫번째는 적절하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자료 분석의 창의성이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창의적인 견고한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능수능란한 질문과 가차 없는 답변 추구, 적극적인 관찰, 그리고 정확한 회상이 필요하다. 그것은 자료를 서로 조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만들고, 그 결과들을 선례와 연결해서 인과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것은 추측과 검증, 수정과 변형, 제안과 방어, 과정이다(신경림, 1997).

연구수집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주간 진행될 것이고, 연구참여자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교내 카페를 이용할 것이고, 학생당 약 1시간씩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인터뷰할 예정이다.

수집된 자료는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될 것이다. 그는 자료수집 방법을 기술하는데 거의 전체적인 강조점을 두었다. 특히 그는 적절한 자료출처를 적절한 자료 수집방법과 일치시키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다. Colaizzi 방법의 자료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자료에서 느낌을 얻기 위해 대상자의 기술(protocols)을 읽는다. ② 탐구하는 현상을 포함하는 구, 문장으로부터 의미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도출한다. ③ 의미있는 진술에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general rest atement)한다. ④ 의미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를 끌어낸다. ⑤ 도출된 의미를 주제(themes), 주제모음(themeclusters), 범주(categories)로 조직한다. ⑥ 주제를 관심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명확한 진술로 완전하게 최종적인 기술(exhaustive description)을 한다(김분환외, 1996).

본 연구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소그룹활동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소그룹활동에 바라는 바도 결과로 도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전공자별 인식들을 바탕으로 수업에서 소그룹 활동을 적용해 간다면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그룹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1] 김분환,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희영,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한국간호과학회, 29권, 6호, 1208-1220, 1월, 1996년.
- [2] 신경림, “질적 간호연구방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년.

### 3. 연구결과 및 결론